

2021.04

이노비즈 정책브리프

Innobiz Policy Brief

혁신 성장의 성과와 과제

-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개최 결과 -

혁신 성장의 성과와 과제: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개최 결과

2021-03호

발행처
이노비즈정책연구원

발행인
임병훈

편집인
김세종

<http://www.innobiz.or.kr>

목 차

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소개	1
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과 성과	3
이노비즈의 성공적인 Exit 전략	7
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성과와 과제	10
패널토론 주요 내용 요약	14

※ 이노비즈 정책브리프 2021-03호는 2021년 4월 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,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'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'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,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요약

-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혁신형 중소기업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
 -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는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우수 연구기관들이 모여 '이노비즈'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
 -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,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지속적이고 가파른 성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함
 - 첫번째 발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 단장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연구개발 현황을 발표하였음
 -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평가 결과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
 -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
 - 두번째 발표에서는 송실대학교 유효상 교수가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엑시트(exit) 전략을 소개하였음
 - 최근 글로벌 경영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,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것이 기업의 고도성장의 방법임
 - 한편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 관점의 엑시트 전략이 수립되는 것도 필요함
 - 마지막 발표에서는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의 최윤수 연구위원이 이노비즈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, 향후 과제를 제시함
 - 이노비즈기업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,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 - 다만, 양적 성장으로 인한 이노비즈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, 이를 고려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함
 - 끝으로 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4인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음
 - 중소기업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과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,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됨
 - 이를 위해 협회와 정부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,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함
-

배경 및 목적

-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「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」을 발표하며,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군의 지속 성장을 강조한 바 있음¹⁾
 - 4차 산업혁명, 코로나19 등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,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기업의 도전정신이 중요함
 - 중소·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, 한국판 뉴딜의 실행, 대·중소 간 양극화 해소에도 혁신형 기업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됨
-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향아리형 경제의 주역인 이노비즈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음
 - 이노비즈기업은 중견기업과 함께 허리층 기업군으로서 국가 혁신 성장 조기 실현을 가능하게 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
 - 그러나 대변혁에 대한 대응과 더 큰 성장을 위해 제도 20년의 성과를 확인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며,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이번 세미나는 ‘혁신형 중소기업’을 연구하는 국내 우수 연구기관들이 모여 ‘이노비즈’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
 -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‘혁신’과 ‘중소기업’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며, 국내 스케일업(scale-up) 생태계의 구축과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음
 -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혁신형 중소기업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
-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는 이노비즈기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,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됨
 -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연구 결과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노비즈의 역량을 확인하고, 지속적이고 더 가파른 성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
 -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
1) 관계부처 합동(2020.11.12.), ‘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’

세미나 개요

- 주 제: 혁신 성장의 성과와 과제
- 목 적: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함

〈표 1〉 제1차 혁신 공동 세미나 개요

구 분	내 용
일 시	2021. 4. 6.(화) 14:00 ~ 17:00
장 소	대한상공회의소 B2F 의원회의실
주최/주관	과학기술정책연구원, 중소기업연구원, 이노비즈정책연구원
후 원	중소벤처기업부, 이노비즈협회
기조연설	혁신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 (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)
발 표	①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과 성과 (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단장) ② 이노비즈의 성공적인 Exit 전략 (송실대학교 유효상 교수) 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성과와 과제 (이노비즈정책연구원 최윤수 연구위원)
토 론	(좌장)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 (패널)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실장, 강원대학교 박상문 교수, 기술보증기금 백경호 이사, (주)쉬엔비 강선영 대표
참 석	이노비즈기업인, 중소기업 관계자 등 약 60여명 ²⁾

2)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세미나 현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었으며, 영상은 이노비즈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
(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,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hqozbMWHGQY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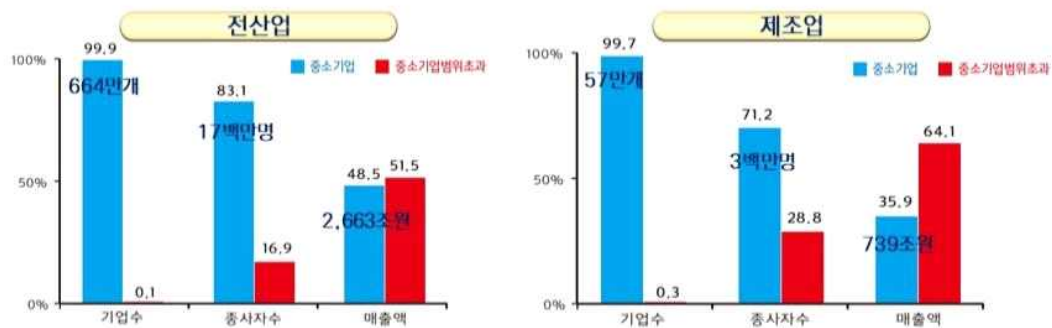
02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과 성과³⁾

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황

-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약 664만 개(기업체 기준)로 전체의 99.9%를 차지하고 있음
 -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의 83.1%인 170만 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며, 매출액은 2,663조 원으로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됨

[그림 1] 중소기업 현황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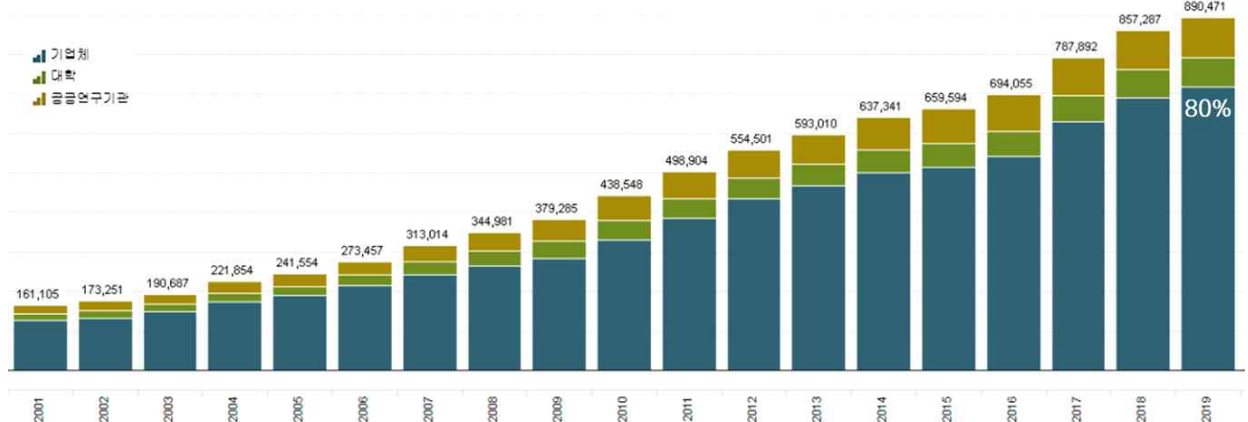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중소기업중앙회,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

-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편으로, 2019년 기준 연간 연구개발비 89조 원의 약 80%가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투자되었음

[그림 2]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

(단위: 억 원)



자료: www.k2base.re.kr

3) 본 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단장의 발표를 요약·정리한 내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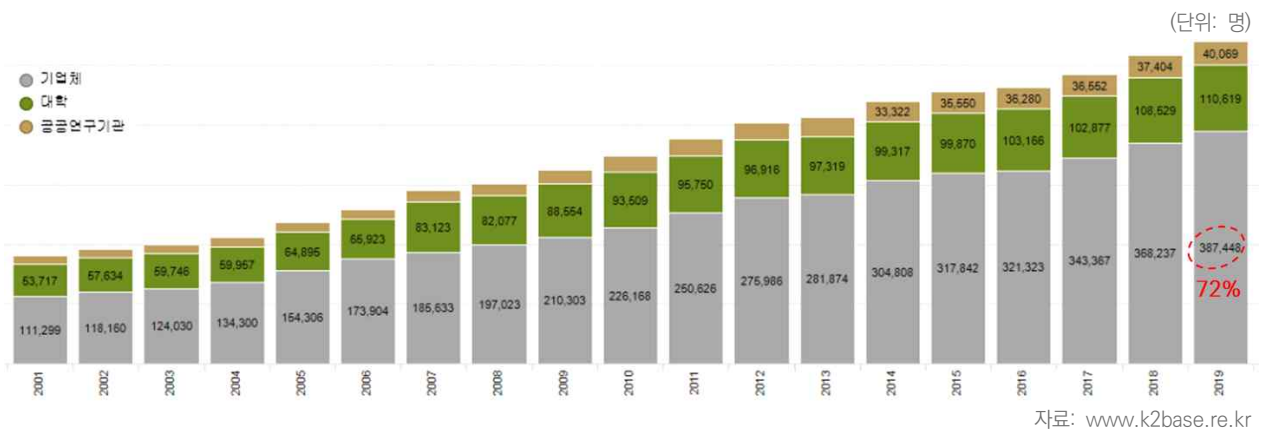
- 한편, 기업 연구개발비의 약 23%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됨

[그림 3]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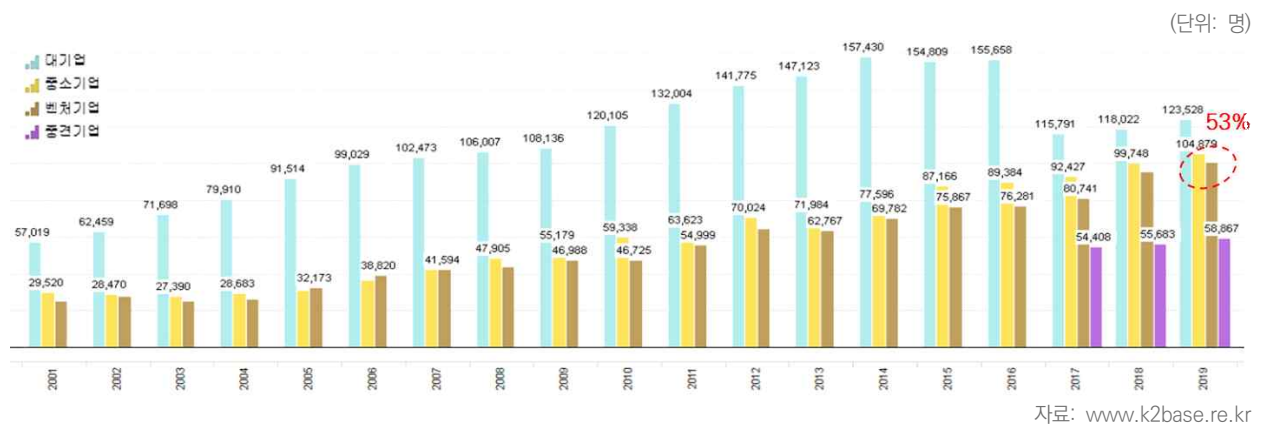


- 우리나라의 연구수행 인력 중 약 72%에 해당하는 387,448명이 기업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중 절반 정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[그림 4]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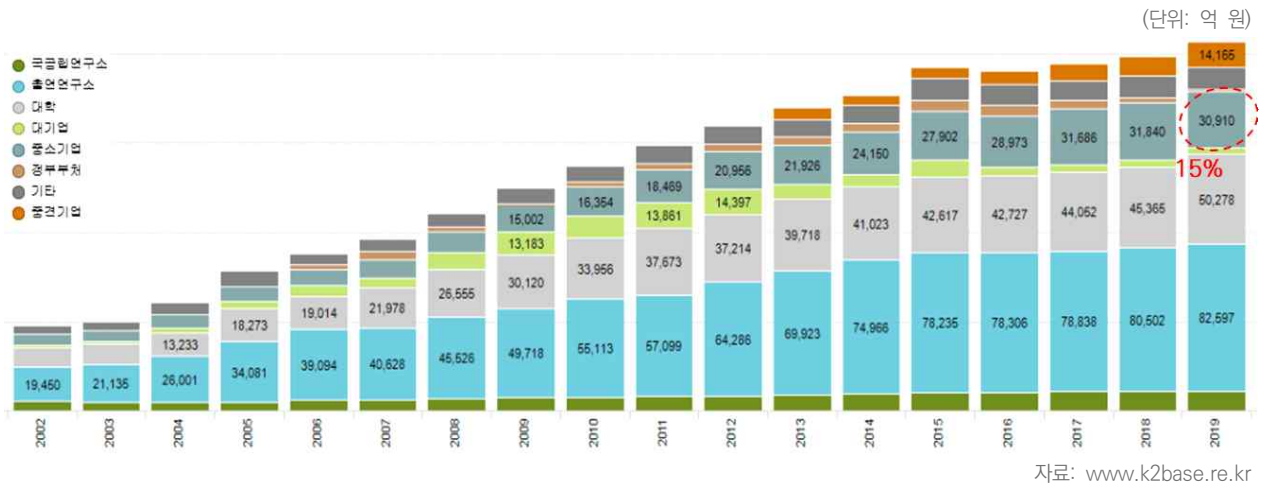


[그림 5] 기업유형별 연구인력



- 한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정부 자금은 약 3조 수준이며, 이는 2019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의 15% 정도 수준임

[그림 6]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



- 기업의 연구개발 형태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전개되고 있음
 - 일반적으로 사전탐색과 철저한 기획이 기술혁신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, 기업들은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
 - 과거 기업 내부에서 진행되던 연구개발 활동은 점차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와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중소기업의 혁신 성장

-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, 산업별(제조업, 서비스업), 규모별(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) 총요소생산성(TFP)*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

* 총요소생산성(Total Factor Productivity, TFP):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의미하며, 노동, 자본 등 단일 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, 노사, 경영체제, 법·제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흔히 기술혁신을 의미함 (출처: 한경 경제용어사전, 시사상식사전)

-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제조업의 기술 진보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
- 또한 업종의 차이와 함께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는데,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제조기업만의 총요소생산성은 더 큰 상승 추세를 기록함
-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이 대기업, 중견기업, 소상공인 등 다른 규모의 기업들 보다 높게 나타남

-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기술신용평가(TCB)*의 기술 등급 자료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

* 기술신용평가(Tech Credit Bureau, TCB): 기술 신용 등급을 산출하거나 용자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역량을 평가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관을 의미함 (출처: 한국기업데이터, NICE평가정보)

※ 기술신용등급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되며 평가 항목은 기술사업역량(경영주, 관리 능력, 기술개발 능력, 제품화 역량, 수익 전망), 기술경쟁력(기술 우위성, 시장 현황, 시장 경쟁력) 등으로 이루어짐

- 중소기업의 기술 등급은 조사 기간 매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, 이는 기술 우위성의 하위 항목인 차별성과 완성도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됨
 - 중소기업의 기술 등급의 상승 추세는 개별 기업의 연도별 변화(패널)로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
 - 다만, 중분류 수준에서 '식품 제조업'과 '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'의 경우 관리 능력 항목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임
-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확인됨
 - 정부 R&D 지원은 기업의 성장(매출 증가율, 자산 증가율), 고용 창출(종사자수 증가율, 임금 증가율), 혁신 역량 확충(연구개발투자 증가율, 특허 및 지식재산권 증가율)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
 - 또한 2016년 정부 R&D 지원 기업의 이후 3년간 혁신 활동을 분석한 결과 미지원 기업과 비교하여 더 많은 연구개발과 외부 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
 - 다만, 정부 R&D 지원을 통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

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과제

-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양적·질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
 - 특히,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우위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,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
- 그러나 코로나19가 기업의 경영 환경을 위협과 변화가 일상인 형태로 바꾼 가운데,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협력이 중요함
 - 성공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성과로 연결(사업화)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탐색 비용이 큰 만큼 빅데이터 기반의 '정보 큐레이팅'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성공의 관점을 개별 기업에서 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, 기업간 혹은 지역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 -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과거 기업 혁신을 보조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가지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참여해야 할 것임

03

이노비즈의 성공적인 Exit 전략⁴⁾

혁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

- 토지·노동·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경쟁 우위 요소가 아닌 혁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
 -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세계 기업의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혁신을 기반으로 짧은 기간동안 급성장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

〈표 2〉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(2021.4.5. 기준)

순 위	기업명	시가총액(달러)	시가총액(원)
1	애플	2.06조	2,331조
2	마이크로소프트	1.82조	2,063조
3	아마존	1.59조	1,797조
4	구글	1.43조	1,623조
5	페이스북	8,504억	960조
6	텐센트	8,064억	911조
7	TSM	6,472억	730조
8	테슬라	6,351억	717조
9	알리바바	6,276억	709조
10	버크셔해서웨이	5,944억	670조

- 반면,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혁신을 기반으로 짧은 기간동안 급성장한 기업은 Naver, 카카오, 셀트리온 등 3개 기업에 그침
- 해외에 상장한 쿠팡이나 넥슨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급성장 기업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

4) 본 장은 송실대학교 유효상 교수의 발표를 요약·정리한 내용임

〈표 3〉 국내 시가총액 순위(2021.4.5. 기준)

순 위	기업명	시가총액(원)	외국인 비율(%)
1	삼성전자(우선주포함)	567조	56%
2	SK하이닉스	102조	50%
3	NAVER	62조	57%
4	LG화학	58조	44%
5	현대자동차	49조	30%
6	삼성바이오	47조	10%
7	삼성SDI	45조	43%
8	카카오	44조	33%
9	셀트리온	43조	21%
10	기아차	35조	33%
해 외	쿠팡	91조	-
해 외	넥슨	33조	-

성장하는 기업들의 전략

-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피벗(pivot)*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,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

* 피벗(pivot): 보통 농구와 같은 구기종목에서 한 발을 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며,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(출처: 표준국어대사전, 인터뷰)

- 「린스타트업(The Lean Startup)」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에릭 리스(Eric Ries)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유형을 다음의 10가지로 제시함

- ① **좁인 피벗(Zoom-in Pivot):** 제품/서비스의 한 가지 기능에 지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제품/서비스가 된 경우
- ② **좁아웃 피벗(Zoom-out Pivot):** 원래 제공하던 제품/서비스는 일부가 되고 그보다 범위가 넓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③ **고객군 피벗(Customer Segment Pivot):** 원래 생각했던 소비자와 다른 소비자군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
- ④ **고객 필요 피벗(Customer Need Pivot):** 특정 고객에게 서비스하다 원래 예상한 문제는 아니었으나 고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 경우
- ⑤ **플랫폼 피벗(Platform Pivot):** 애플리케이션에서 플랫폼으로 바뀐 경우 혹은 그 반대
- ⑥ **사업 구조 피벗(Business Architecture Pivot):** 마진이 높은 소규모 시장(주로 B2B)에서 마진이 적은 대규모 시장(주로 B2C)으로 변경하는 경우

- ⑦ **가치 창출 피벗(Value Capture Pivot):** 수익 창출 방식을 바꾸는 것(주로 유료화나 수익 모델 변경)
 - ⑧ **성장 동력 피벗(Engine of Growth Pivot):** 더 빠른 성장을 위하여 성장 전략 변경(예: 바이럴 마케팅, 집중 전략, 유료 성장 모델 구축 등)
 - ⑨ **유통 경로 피벗(Channel Pivot):** 같은 솔루션을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(예: 딜러십 판매에서 직판매로 변경)
 - ⑩ **기술 피벗(Technology Pivot):** 한 회사가 해결책을 위해 완전히 다른 기술을 사용(예: 낮은 가격이나 고성능)
- 빠르게, 게다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기업인 아마존, 구글, 페이스북이 다른 첨단기업들과 다른점은 시장 선점에 집중하는 블리츠 스케일링(blitz-scaling)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임
 - 블리츠 스케일링이란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빠른 속도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대규모 적자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고도성장 전략임
 -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승자독식을 목적에 두고 있는데, 국내의 경우 쿠팡,마켓컬리, 직방, 당근마켓 등이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사례임
 - 블리츠 스케일링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은 최적화보다 선점을 우선 목표로 두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
 - 초연결·초지능화가 가속되고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오늘날의 시장 환경 속에서,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블리츠 스케일링은 정확성과 효율을 추구하는 과거의 전략보다 더 나은 성장 전략으로 판단됨

성공적인 엑시트(Exit)에 대한 고민도 필요

- 치열한 경쟁속에서 기업의 평균 수명은 10년 내외로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 기업의 엑시트(회수)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 - 기업의 엑시트는 파산, 청산, 기업승계, M&A, 상장 등 5가지 유형이 존재함
 - 기업이 상장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, 기간도 길기 때문에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는 변곡점에서의 엑시트가 좋은 전략일 수 있음
 - 기술 역량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개방형 혁신(open innovation)의 관점에서 M&A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
성장과 성공에 대한 관점

- 시대 변화의 흐름속에서 성장과 성공을 위한 전략은 수정될 필요가 있음
 - 기업의 도전과 실패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확산되어야 함
 - 또한, 성공적인 엑시트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기업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엑시트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

04

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성과와 과제⁵⁾

혁신형 중소기업의 우수성

-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, 우리나라에서는 이노비즈기업(기술혁신형중소기업), 메인비즈기업(경영혁신형중소기업), 벤처기업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
 -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을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 - 또한 선도그룹군으로서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며,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

〈표 4〉 혁신형 중소기업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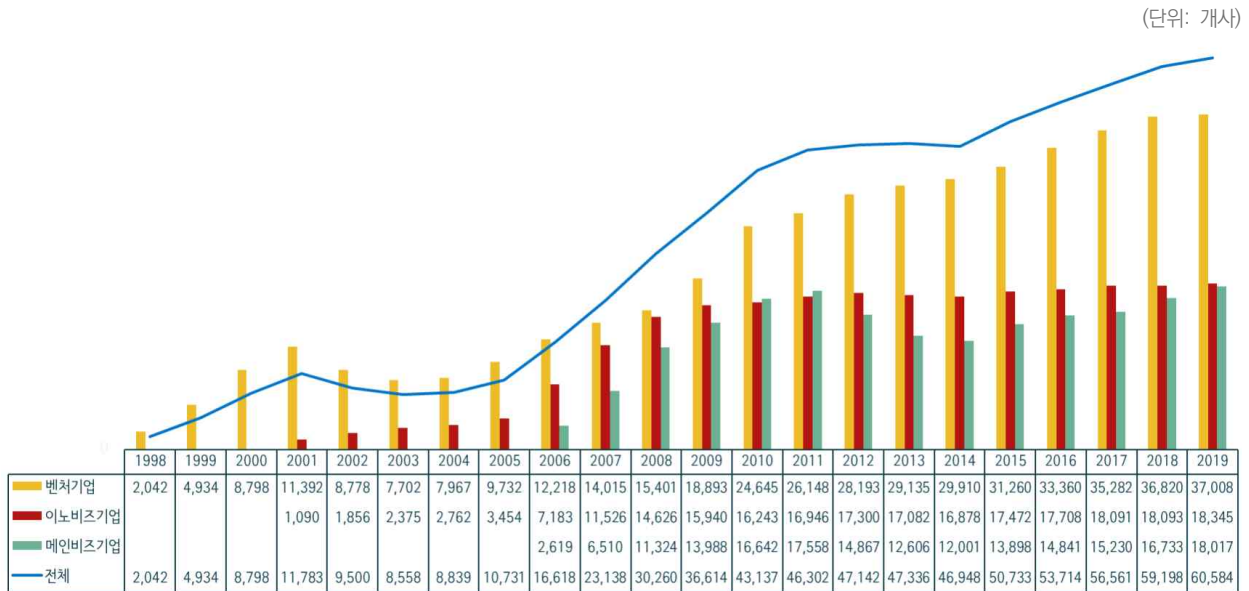
구 분	이노비즈기업 (2001~)	메인비즈기업 (2006~)	벤처기업 (1998~)
특 성	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	경영혁신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	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, 아이디어 기반의 모험적인 기업
기 준	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 이상, 개별기술평가 B등급 이상	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경영혁신시스템평가 700점 이상	① 벤처투자 유치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 ③ 혁신성장 중소기업
평가/인증	기술보증기금/중소벤처기업부	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한국생산성본부/중소벤처기업부	한국벤처캐피탈협회,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기술보증기금 등 10개 기관/벤처기업협회
유효기간	3년	3년	3년
법적근거	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		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

자료: 각 기관 홈페이지

- 혁신형 중소기업군은 20여 년간 양적·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
 - 지난 1998년 벤처기업 2,042개사로 시작된 혁신형 중소기업군은 2001년과 2006년에 이노비즈기업, 메인비즈기업이 새롭게 등장하며, 2019년 말 현재 약 6만 개 기업군으로 성장하였음

5) 본 장은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최윤수 연구위원의 발표를 요약·정리한 내용임

[그림 7] 혁신형 중소기업 증가 추이

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

-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유형 자원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내 학습 및 축적된 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
- 또한, 혁신 DNA를 바탕으로 시장수요 및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전략적 R&D 투자를 기반으로 대응을 넘어 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
- 이처럼 활발한 혁신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음

<표 5> 혁신형 중소기업의 우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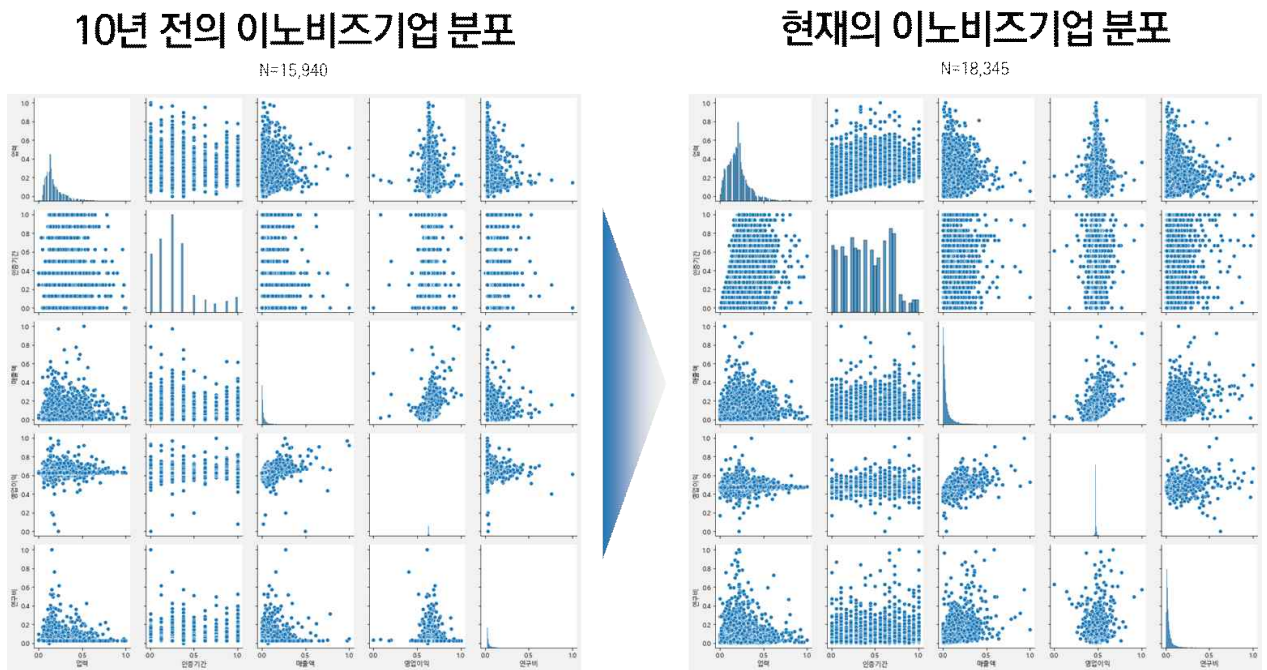
구 분	이노비즈기업	메인비즈기업	벤처기업	일반 중소제조기업
기업수	18,345개사	18,017개사	37,008개사	139,943개사
매출액	159.0억원	142.1억원	53.0억원	42.8억원
영업이익	6.4억원	4.6억원	1.2억원	2.2억원
영업이익률	4.0%	3.2%	2.3%	5.1%
부채비율	106.9%	139.7%	128.3%	141.2%
업력	18.2년	17.2년	11.0년	12.3년
종사자 수	42.6명	37.4명	22.2명	16.0명
R&D투자비율	3.17%	1.93%	4.90%	2.94%
산업재산권	14.6건	6.8건	7.9건	8.5건
수출기업비중	54.1%	25.2%	23.0%	21.7%

자료: 2020년 각 기관별 실태조사 보고서, 중소기업실태조사,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

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이노비즈(Innobiz)

- 이노비즈란 혁신(innovation)과 기업(business)의 합성어로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함
 - 이노비즈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임
 - 글로벌 기술혁신 평가모델(Oslo Manual)을 기준으로 ‘기술성’과 ‘성장성’을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는 이노비즈는, 건실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혁신 친화적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
- 2020년 말 기준 이노비즈기업 수는 18,920개이며,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의 약 60%, 업종별로는 제조업인 기업이 약 70%를 차지하고 있음
 -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약 3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은 생산성, 안정성, 고용 창출 효과에서 우수한 스케일업(scale-up) 기업군임
 - 이노비즈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가운데, 1,090개사로 시작된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동일한 지원과 정책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
 - 실제 주요 경영지표를 기준으로 이노비즈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10년 전과 현재의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음

[그림 8] 이노비즈기업의 분포 변화



자료: 이노비즈협회,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

- 하나의 제도와 정책의 대상인 이노비즈기업군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
 - **(지역별)** 수도권에 분포한 기업은 비수도권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수도권의 기업은 R&D에 비수도권의 기업은 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
 - **(업종별)** 제조업의 경우 수출기업의 비중이 69%로 비제조업의 29%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,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함
 - 제조업은 설비에, 비제조업은 R&D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제조업은 수출기업이, 비제조업은 내수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**(수출 여부)** 수출기업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내수기업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며, 특히 종사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음
 - **(매출 규모별)** 매출 규모에 따라 영업이익, 수출액, 종사자수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, 설비와 R&D에 대한 투자가 1,000억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
 - **(종사자 규모별)** 일정한 추세나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나, 인당 매출액은 9인 이하, 인당 영업이익은 200~299인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

이노비즈의 성과와 과제

- 이노비즈기업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, ‘항아리형 경제’ 실현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함
 - 과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는 위기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은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강소기업의 91%를 차지하는 등 위기 극복의 힘이 되었음
 - 또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서도,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수출의 절반 이상(54.1%)을 담당하며,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음
- 이노비즈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양적 성장과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
 -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외부 영향으로 혁신과 성장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중소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차이 점검이 필요함
 - 또한 제도 운영과 정책 기조도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

문제의 본질은 불확실성

- 최근 빠른 환경변화로 중소기업은 다양한 외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, 본질은 불확실성임
 - 불확실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지만, 혁신의 주기가 짧아진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함
 -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혁신을 위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함
 - 한편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제도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
-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
 - 이미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한다는 점은 고무적임
 - 이노비즈기업이라는 것은 혁신을 마쳤다는 개념보다는 혁신을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
 - 과거와 현재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이 필요함
 - 새로운 시대에는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,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
 - 이노비즈기업 스스로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임
 - ① 왜 그 기술이어야 하는가
 - ② 왜 우리만이 할 수 있는가
 - ③ (만약 필요하다면) 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가
 - ④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존재하는가

체계적으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

-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와 자금은 기업이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
 - 혁신형 기업의 성장과 비교하면 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음
 - 과거 다양한 지원을 많은 기업에 제공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
- 한편 우수 인력과 같은 혁신에 필요한 요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
 - 지역에서 활동하고 혁신 역량을 갖춘 리딩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, 지역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

이노비즈 정책브리프

발행인 | 임병훈

편집인 | 김세종

발행일 | 2021년 4월 27일

발행처 | 이노비즈정책연구원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(삼평동) 이노밸리 E동 202호

전화 : 031-628-9600 팩스 : 031-628-9611 홈페이지 : <http://www.innobiz.or.kr>

※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이노비즈협회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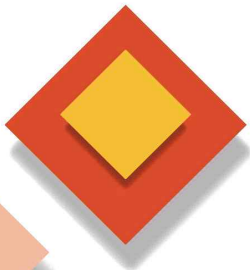
※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지는 일반 학술연구와는 달리 시의성, 정책현안의 긴급성 등의 이유로 포괄적·개괄적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
이노비즈 정책브리프

Innobiz Policy Brief

2021.04



혁신 성장의 성과와 과제

-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개최 결과 -